

연구논문

재일동포가 한국 야구에 미친 영향 장명부를 중심으로

김은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 사회학 전공

esew@hanmail.net

I. 머리말

II. 한국 야구의 성장과 재일동포 선수의 참여

III. 재일동포 야구선수의 형성과 유입

IV. 장명부의 사례: 전형적 경로와 사건적 계기

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 야구는 짧은 기간 동안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대중적 기반을 닦고 확대해 나갔다. 1950년대 아시아 중위권 수준에 머물던 한국 야구는 1960년대에는 아시아 정상급으로 도약했고, 1970년대에는 아마추어 세계 정상권에 진입했으며, 2000년대에는 WBC 등 프로를 포함한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사이 연평균 관중 수는 10만 명 이하에서 1,2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장을 설명하는 기존 논의는 주로 제도적 요인에 집중해 왔다. 국가 주도의 체육 정책, 1982년 프로야구 출범이라는 구조적 전환점, 경제개발에 따른 소비 확대와 대기업의 자본 투입 등에 주목해 온 것이다.¹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즉 프로화 이전부터 프로 초창기 사이의 급격한 기술 수준 향상과 그로부터 파급된 현상들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다. 특히 당시 한국 야구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일본의 기술 체계를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독자적 스타일을 확립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약 30년간 한국 야구계에서 활약한 재일동포 선수들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 시기 재일동포 선수들은 일본 프로야구에서 습득한 기술을 한국에 전달하는 매개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1982년 한국 프로야구 출범을 전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7087051).

1 김명권, 「한국 프로야구의 창립배경과 성립과정」, 『스포츠인류학연구』 7-2(2012); 김은식, 「1970년대 한국사회의 변동과 프로야구의 탄생」, 『한국학』 42-2(2019); 김은식, 「한국 야구의 발전과 프로야구의 제도화 과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22).

후하여 일본 프로야구 리그의 정상급 선수들을 포함한 주목할 만한 규모의 이동이 이루어졌고, 그 중심에 장명부라는 상징적 인물이 있었다.

지금까지 재일동포 선수들의 역할이 한국 야구사 서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이들의 이동과 활약은 학술적 분석의 대상이기보다 ‘고국을 찾은 해외 동포의 성공담’이나 ‘이색적인 개인 기록’ 등 서사적 차원에서 주로 소비되었다. 이는 첫째, 한국 스포츠사 연구가 제도사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개별 행위자들의 역할이 간과되었고, 둘째, 재일동포 연구가 주로 사회학적·정치적 맥락에 집중되면서 스포츠 분야의 구체적 기여가 부차화되었으며, 셋째, 민족주의적 서사 속에서 ‘외부로부터의 기술 이전’이라는 사실이 불편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재일동포 선수들의 이동과 활약을 역사적 문헌과 통계 데이터를 통해 추적하고, 특히 기술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이 수행한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기여가 왜 한국 야구사 서술에서 덜 주목받고 덜 논의되어 왔는지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스포츠사를 보다 다층적이고 초국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 연구와 관련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프로야구 출범과 제도화 과정을 다룬 연구들이다. 김명권은 한국 프로야구의 창립 배경과 성립 과정을 체육 정책과 기업의 참여를 중심으로 분석했으며,² 김은식은 1970년대 한국 사회의 변동과 프로야구 탄생의 관계, 그리고 제도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³ 이들 연구는 프로야구가 국가·자본·미디어의 결합으로 탄생했음을 밝혔으나, 실제 경기를 수행한 선수들의 이동과 기술 전수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았다.

2 김명권, 앞의 논문(2012).

3 김은식, 앞의 논문(2022).

둘째, 한국보다 먼저 야구를 수용하고 발전시킨 일본에 주목하는 연구들이다. 전용배·김애랑은 한·일 야구의 사회문화적 함의를 비교했으나,⁴ 일본 야구 기술이 한국으로 전달된 구체적 경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 김은식은 1960~1970년대 실업야구의 야구사적 의의를 검토하면서 재일동포 선수들의 존재를 언급했으나,⁵ 이들의 활약이 한국 야구 기술 수준 향상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또한 조희준은 재일동포학생야구단의 모국방문경기에 관한 역사적 연구를 수행했으며,⁶ 우승호는 이경기가 한·일 양국 야구 발전에 미친 영향을 추적했다.⁷ 이들 연구는 재일동포 야구인들의 활동을 조명했으나, 주로 아마추어 수준의 교류에 초점을 맞추었고, 프로야구 출범 이후 본격화된 재일동포 선수들의 이동과 그 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프로야구 제도화와 재일동포 교류를 각각 다루었으나, 재일동포 선수들의 이동이 한국 야구의 기술적 성장과 연관되었다는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재일동포 선수들의 한국 진출 규모, 시기, 활약상을 검토하고, 이들의 이동이 어떤 구조적 조건 속에서 가능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왜 한국 야구사 서술에서 이들의 기여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는지를 학술 문헌과 언론 보도의 경향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4 전용배·김애랑, 「한일야구의 사회문화적 함의 비교」, 『일본근대학연구』 34(2011), 331~351쪽.

5 김은식, 「1960~1970년대 한국실업야구의 야구사적 의의에 관한 연구」, 『스포츠인류학연구』 19-2(2024), 1~28쪽.

6 조희준, 「한국야구 발전에 기여한 백상 장기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6).

7 우승호, 「재일동포학생야구단의 모국방문경기에 관한 역사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재일동포 선수들은 1960~1980년대 한국 야구 기술 향상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가? 이들의 활약은 단순히 개별 선수의 성과에 그쳤는가, 아니면 한국 야구 전체의 경기력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재일동포 선수 이동은 왜 특정한 시기(1960년대와 1980년대)에 집중되었는가? 이러한 시기적 집중은 일본 사회의 차별 구조, 한국 프로야구 출범에 따른 수요 변화, 경제적·제도적 조건 등 구조적 배경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셋째, 이들의 역할이 한국 야구사 서술에서 저평가된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역사적 문헌 분석과 통계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혼합 방법론을 사용하며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일 양국의 야구 관련 1차 문헌(경기 기록, 신문 기사, 공식 통계)과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고, 재일동포 선수의 이동 패턴을 정량적으로 추적한다. 그리고 재일동포 야구선수들의 한국 진출을 개인적 동기나 민족적 감정의 결과가 아닌 한·일 양국 야구 생태계의 경제적 보상 구조 변화에 따른 합리적 선택으로 재해석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자료를 활용했다. 첫째, 한국 야구의 국제대회 성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1954~1975), 세계야구선수권대회(1976~1978), 대륙간컵(1973~1979) 등의 공식 기록을 검토했다. 둘째, 재일동포 선수들의 이동 규모와 활약상을 확인하기 위해 대한야구협회가 발간한 『한국야구사』, 실업야구 및 프로야구 공식 기록, 당시 신문 기사, 관계자 증언 등을 종합하여 검토했다. 셋째, 한·일 프로야구 연봉 격차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KPBPA), 일본프로야구선수회(JPBPA), 한국은행 경제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했다.

또한 재일동포 선수들에 대한 언론 보도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야구 출범 초기인 1982년 장명부 입단 시점의 주요 일간지 기사를 검토하고,

이후 1980~2000년대 관련 보도를 추적하여 보도 경향을 분석했다. 이는 재일동포 선수들의 기여가 어떻게 서술되고 소비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적 방법이다.

장명부의 사례는 구술 증언과 2차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했다. 동생 장용부의 구술, 고교 동료들의 증언, 필자가 연출 스태프로 참여한 다큐멘터리 영화 <현해탄의 낙엽>(이영곤 감독) 등을 활용했으며, 이를 홍순일의 탐사 기사 및 당시 신문 보도와 교차 검증했다.

II. 한국 야구의 성장과 재일동포 선수의 참여

1. 한국 야구의 성장 과정

한국 야구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국제대회 성적, 경기 운영 방식, 투타 기술 수준, 기록 생산 구조 등 여러 지표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아시아 중위권에서 세계 정상권으로 도약하는 질적 전환이었다.

1954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는 한국 야구가 국제무대에 나선 출발점이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3위를 기록했고, 이후 수년간 일본과 필리핀에 밀리는 중위권 성적에 머물렀다. 특히 2회부터 4회까지 우승을 독점한 최강팀 일본과의 기술 격차는 명확했다. 1회부터 4회 대회까지 한국은 일본과 5차례 대결해 5번 모두 패배했으며 그중 4경기는 완봉패였다. 총득점은 5, 실점은 41이었다.⁸

8 김은식, 앞의 논문(2022), 419쪽.

표1-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한국 성적(1954~1975)⁹⁾

연도(회차)	개최지	참가팀	한국 순위	비고
1954(1회)	필리핀	4개국	3위	첫 국제대회 참가
1955(2회)	필리핀	4개국	3위	-
1959(3회)	일본	4개국	2위	준우승
1962(4회)	대만	4개국	2위	대만과 공동 2위
1963(5회)	한국	4개국	우승	사상 첫 국제대회 우승
1965(6회)	필리핀	4개국	2위	-
1971(9회)	한국	5개국	우승	호주 첫 참가
1975(11회)	한국	5개국	우승	5개국 풀 리그 방식

변화가 관찰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서울에서 열린 제5회 대회였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일본을 꺾고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는 한국 야구가 아시아 정상급으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우승은 한국 야구의 급격한 기술 향상을 보여 주는 지표였다. 이전까지 상대 전적 5전 5패의 절대적 열세였던 한국은 그 대회 1, 2차 리그에서 각각 5대 3과 3대 0으로 승리하는 반전을 이루어 냈는데, 이는 재일동포 배터리 신용균과 서정리의 활약과 더불어 타자들 역시 일본 투수들의 변화구에 적응하기 시작한 덕분이었다. 이전까지 속구와 커브 외에는 알지 못했던 한국 타자들에게 일본 투수들이 구사하던 횡적 변화구(슬라이더)나 타석 근처에서 갑자기 궤적이 바뀌는 변화구(체인지업, 포크볼)는 공략이 불가능한 비밀무기였기 때문이다.¹⁰⁾ 신용균은 그 비밀무기를 한국 타자들에게 공개한 프로메테우스적 존재였다.

9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역대 성적 아카이브 및 한국야구사간행위원회, 『한국야구사』(서울: 대한야구협회, 1999)에서 재구성.

10 백인천 구술(2021. 5. 24).

1970년대에는 이러한 성장세가 더욱 공고해졌다. 한국은 1971년과 1975년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연속 우승하며 아시아 정상 위치를 확고히 했고, 세계무대로도 진출했다. 1976년 콜롬비아에서 열린 제24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 처음 참가해 6위를 기록했고, 1978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하며 아마추어 세계 정상권에 진입했다. 그리고 1977년 니카라과에서 열린 제3회 대륙간컵 대회에서는 우승을 차지하며 성인 대표팀으로서 사상 첫 세계대회 우승을 달성했다. 또한 1982년에는 서울에서 열린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을 하여, 아마추어 최고 권위의 세계대회에서 정상으로 공인받게 된다.

재일동포학생야구단과의 교류 경기 성적 변화를 통해서도 한국 야구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1950년대 후반 한국의 고교팀들은 상대 팀과의 경기에서 절대적인 열세를 면치 못했고 재일동포팀의 승률은 7할에서 9할에 달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들어 점차 승패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다. 1968년 5승 6무 5패, 1970년 6승 2무 6패를 기록하며 양 팀 간 전력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¹¹ 이는 대표팀과 실업팀 선수들에게 소개된 신종 변화구들이 고교 야구 선수들에게도 빠르게 전파되거나 모방되기 시작한 시점이 1960년대 중반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¹² 이는 한국 야구가 일본 야구의 기술 수준에 근접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한국 야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프로리그는 선수들에게 보다 개선된 전업 환경을 제공했고, 경쟁 강도를 높였으며, 대중적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동메

11 우승호, 앞의 논문(2017), 95~96쪽.

12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국 고교야구에서 구사된 최초의 슬라이더는 1963년 4월 7일 서울시 고교야구준계리그에서 경기고 변재혁이 경동고를 상대로 1안타 완봉승을 거둔 경기에서 나왔다. 《동아일보》, 1963년 4월 10일.

달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획득은 이러한 성장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처럼 한국 야구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약 30년간 아시아 중위권에서 세계 정상권으로 도약하는 극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그 위상은 2000년대까지 이어졌다.

2. 재일동포 선수의 규모와 활동

한국 야구의 기술적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던 시기는 재일동포 선수들이 한국 무대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던 시기와 겹친다. 특히 1956년부터 1997년까지 42년간 지속된 재일동포학생야구단 모국방문경기는 일본에서 성장한 재일동포 선수들이 한국 야구와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였다.¹³ 이 경기를 통해 한국 선수들은 일본 야구의 기술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습득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일부 재일동포 선수들이 이를 계기로 직접 한국 무대로 이동해 정착했기 때문이다.

1956년 일본 프로야구 구단인 주니치 드래건스의 2군 출신 내야수 장석화가 한국 실업팀 조선운수에 입단한 것을 시작으로, 프로야구 창설 이전까지 최소 18명 이상의 재일동포 야구선수들이 한국 대학 및 실업팀에 합류했다.¹⁴ 특히 1963년 주요 시중 은행들이 일제히 실업야구팀을 창단해 실업야구리그가 확대되었고, 처음으로 직업적 성인야구의 영역이 형성되면서 그 흐름은 더욱 빨라졌다. 이들 대다수는 일본 프로야구 2군 출신이거나 프로 진입에 실패한 경우였으나, 한국 실업야구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프로팀에 입단한 경력이 있는 선수는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

¹³ 조희준, 앞의 논문(2016), 56~57쪽.

¹⁴ 김은식, 앞의 논문(2024), 12쪽.

표2-실업야구 시기 주요 재일동포 선수 (1956~1977)

입단연도	이름	소속팀	포지션	주요 경력 및 활약
1956	장석화	조선운수	내야수	주니치 2군 출신
1963	신용균	대한통운	투수	1963년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우승 주역
1963	한광홍	성대, 기은	내야수	1970년 실업 타격왕
1964	김영덕	크라운맥주	투수	1964년 20승 0.31 ERA
1966	김동률	제일은행	내야수	1967년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타격왕
1966	허종만	한일은행	투수/내야수	1967년 청룡야구상 유격수 부문
1970	김호중	한일은행	투수	한큐-한신 프로 9년

회에 출전할 수 없었고, 한국에서 활동한 재일동포 선수들 중에서도 7명이 일본에서 프로팀에 입단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국가대표 선발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최소 11명 중 7명(신용균, 배수찬, 김성근, 서정리, 박정일, 한광홍, 김동률)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활약하며 각종 국제대회에서의 성적 향상을 이끌었다. 1963년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당시 주전 배터리로 활약하며 한국의 사상 첫 우승을 이끈 신용균과 서정리가 대표적인 예였다.¹⁵

재일동포 선수들의 활약은 실업야구 무대에서도 두드러졌다. 실업야구 주요 타이틀 수상자로는 배수찬(1962년 최우수선수), 김영덕(1964년 방어율왕, 1965년 다승왕, 1967년 다승왕, 방어율왕, 최우수선수), 신용균(1964년 다승왕, 탈삼진왕, 최우수선수), 한광홍(1970년 타격왕), 김동률(1968년 타격왕) 등이 있었다. 특히 일본 프로야구 6승 경력의 김영덕은 1964년 실업야구에서 20승과 0.31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성적을 남겼는데, 그는 신용균과 함께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싱커 등의 변화구를 한국 무대에 본격적

15 장태영, 『백구와 함께 한 세월: 장태영 야구인생 70년』(서울: 흥, 1998), 209~211쪽.

으로 소개하며 한국 야구의 투수 기술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에는 재일동포 선수 유입이 더욱 확대됐다. 1980년대 초반(1982~1985)에는 장명부, 김일용, 주동식, 김무중 등이 크게 활약하며 재일동포 선수 영입이 팀 성적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게 했고, 그런 영향으로 1980년대 후반(1986~1990)에도 홍문중, 최일언, 김성길, 고원부, 김정행 등이 각 팀의 중심 선수로 활동했다. 프로야구 창설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약 30명의 재일동포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리그에서 활약했으며, 이는 실업야구 시기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전체적으로 1956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약 50명 이상의 재일동포 선수가 한국 야구에 참여했으며, 이 중 투수가 약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의 영향은 문화적 상징이나 정체성 차원이 아니라 기술적 자극과 기술 이전이라는 실질적 차원에서 작동했다. 투수와 타자의 대결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종목인 야구에서 속구와 커브만을 활용해서 이루어지던 한국 야구에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싱커 등을 소개해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고 상대하게 했다는 사실은 그 핵심적인 단면이다. 그 외에도 재일동포 선수들이 일본 야구에서 체득한 투구 메커니즘, 경기 전후 신체관리요령, 경기 운영 감각 등은 당시 한국 야구가 가장 뒤떨어진 영역이었으며, 이들의 존재 자체가 한국 선수들에게 일본 야구 기술을 직접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Ⅲ. 재일동포 야구선수의 형성과 유입

1. 재일동포의 사회적 조건과 야구선수의 형성

재일동포 사회는 식민지 시기 강제 동원을 포함한 집단 이주와, 해방 이

후 귀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다. 일본에 정착한 이후에도 재일동포들은 국적과 혈통을 기준으로 한 법적·사회적 차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¹⁶ 특히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법률 이전의 당연한 규정’이라는 1953년 일본 내각법제부의 법해석은 1986년에 일부 기술직에 한해 완화 적용될 때까지 고수되었고, 대부분의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들 역시 그에 준하는 내규나 관행에 근거해 재일동포들의 취업을 막았다.¹⁷

그 결과 다수의 재일동포들은 개인적 노력과 무관하게 사회적 이동의 경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며, 그 결과 1995년 일본 정부의 집계에서도 재일동포의 실업률이 일본인의 두 배인 8.3%로 나타났는데¹⁸ 1980년대 이전에는 그보다 훨씬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이 있더라도 자영업, 혹은 일용직이거나 도박업 같이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위험 산업의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스포츠, 특히 일찍부터 프로화가 이루어지고 비교적 명확한 성과 평가가 가능했던 야구는 재일동포들에게 제한적이거나 개방된 경쟁의 장으로 기능했다. 학력이나 출신 배경보다 경기력과 신체 능력이 중시되는 스포츠의 특성은, 제도적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개인의 성취 가능성을 제공했다. 다시 말하면, 국적 문제와 혈통주의에 기초한 채용 관행으로 인해 재일동포들의 공무원, 대기업, 전문직 진입이 제한되었던 반면, 스포츠

16 정진성, 「재일동포의 국적과 정체성」, 『일본공간』 21(2017), 68~72쪽.

17 조상균, 「국적을 이유로 하는 재일동포의 공무원 승진임용 차별」, 『인권과 정의』 348(2005), 72~73쪽.

18 《매일노동뉴스》, 2000년 7월 14일.

영역은 상대적으로 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던 것이다.¹⁹

김경홍(가네다 마사이치[金田正一])과 장훈(하리모토 이사오[張本勲])처럼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로 꼽히는 재일동포 선수들의 존재는, 스포츠가 재일동포에게 제공한 제한적이지만 실질적인 사회적 이동 가능성을 보여 준다. 야구는 전후 일본 사회에서 대중 스포츠로 빠르게 자리 잡았고, 재일동포 청소년들 역시 학교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야구를 접할 수 있었다.²⁰ 재일동포 소년들은 일본 야구 특유의 훈련 체계와 경기 문화를 내면화하며 성장했지만, 국적을 보유하지 못한 조건은 동일한 능력을 지닌 일본인 선수들에 비해 더 높은 탈락 위험으로 작용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재일동포 야구선수들은 일본 사회 내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일본과 한국을 잇는 이동 가능성을 열어 두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야구는 재일동포 사회에서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제한된 조건 속에서 사회적 이동과 정체성 형성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장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형성된 재일동포 야구 선수 집단은 이후 특정한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에 따라 한국 야구와 접촉할 수 있는 역사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2. 재일동포 선수 유입의 경로와 메커니즘

1963년 한국 실업야구의 확장은 재일동포 선수들에 대한 첫 번째 수요 증가 국면을 만들어 냈다. 1960년대 들어 은행·기업·관공서 팀을 중심으로 실업야구 무대가 확대되면서 선수 충원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일본 야구 시스템에서

19 조상균, 앞의 논문(2005), 34~37쪽.

20 Daniel A. Métraux, "Baseball in Japan and the US: History, Culture, and Future Prospects," *Sports, Culture, and Asia*, Vol. 21, No. 2(2016), pp.44~45.

훈련받은 재일동포 선수들은 이 수요를 채우는 자원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일본의 고교·대학·사회인 야구를 거친 뒤 한국 실업팀에 합류하거나, 내한 경기와 각종 대회를 계기로 한국 무대에 정착하는 경로를 밟았다.²¹

한편 1974년 시중 은행 직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각종 수당을 재무부가 강제로 철폐시킨 이른바 ‘서정쇄신’ 조치는 은행권의 지출 여력을 축소시키면서 은행권이 주도하던 실업야구까지 위축시켰다.²² 당시 실업야구를 대표하는 에이스였던 김영덕(한일은행), 신용균(제일은행)을 비롯해 재일동포 선수들 대부분이 ‘특수 행원’ 신분이었었는데, 서정쇄신 바람이 불자 이들의 고액 연봉과 특혜성 채용 및 일반 업무 면제 등도 감사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은행원이 야구만 하는데 왜 일반 행원보다도 훨씬 많은 월급을 받는가’라는 질책 앞에서 은행들은 재일동포 선수들이 받던 특별대우를 축소시키거나 퇴진을 압박했다. 이 조치는 재일동포 선수들의 한국 유입을 일시적으로 둔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1982년 프로야구 출범은 이러한 정체를 일거에 돌파하여 재일동포 선수들의 이동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제도적 전환점이 되었다. 6개 구단이 동시에 창단되면서 200명 이상의 선수가 필요했는데, 국내 인력만으로는 충당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²³

실업야구 시대에 선수들의 보수는 소속 직장의 급여 체계에 종속되어 있었고, 야구 실력은 임금이나 출전 기회로 직접 환산되지 않았다.²⁴ 반면 국

21 김은식, 앞의 논문(2024), 12쪽; 조희준, 앞의 논문(2016), 56~57쪽.

22 김용식, 「한국 프로스포츠의 발전과정과 미래지향적 모형」,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1997), 145쪽.

23 한국야구사간행위원회, 앞의 책(1999), 210쪽.

24 심지어 실업팀에서는 선수생활이 길어질수록 실무능력 배양의 기회가 적어지고 승진의 시점도 미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은 늦어도 30세 전까지는 은퇴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선호했다. 강병철 구술(2026. 4. 24).

표3-1982~1990년 한·일 프로야구 평균 연봉 및 격차 비교²⁵

연도	한국(KBO) 평균 (A)	일본(NPB) 평균 (B)	원/엔 환율 (100엔당)	일본 평균 원화 환산 (C)	격차 (C/A)
1980	300만 원	602만 엔	268원	1,613만 원	5.38배
1982	1,215만 원	733만 엔	293원	2,147만 원	1.76배
1983	1,324만 원	815만 엔	338원	2,754만 원	2.08배
1984	1,515만 원	896만 엔	335원	3,001만 원	1.98배
1985	1,723만 원	993만 엔	434원	4,309만 원	2.50배
1986	1,980만 원	1,120만 엔	545원	6,104만 원	3.08배
1988	2,345만 원	1,415만 엔	571원	8,079만 원	3.44배
1990	3,122만 원	1,844만 엔	525원	9,681만 원	3.10배

*주: 1980년 한국은 실업야구이며, 은행원 평균연봉 기준.

가·자본·미디어가 결합한 산업으로서 프로야구가 출범하면서 선수는 계약의 주체로 재설정되었고, 연봉 수준은 실업야구 시절에 비해 약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선수의 기술과 성과가 시장 논리를 통해 직접 평가·보상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재일동포 선수들에 대한 수요를 폭증시켰다. 특히 일본 프로야구 경험이 있는 투수들은 초기 리그의 질적 수준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되었다.

프로야구 창설은 국가 주도의 체육 정책, 대기업의 마케팅 전략, 급속히 성장하던 미디어 환경, 그리고 1970년대 후반까지 이어진 고도 경제성장이라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결합해 이루어졌다. 청와대와 체육 행정 당국은 대중

²⁵ 한국야구사간행위원회, 앞의 책(1999), 일본프로야구선수회(JPBA), 한국은행 ECOS를 토대로 작성함.

스포츠를 통한 사회 통합과 정치적 동원이라는 목적 아래 프로야구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동했고, 기업들은 팀 운영을 통해 브랜드 노출과 광고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 부응했다.²⁶ 컬러 TV 보급과 방송 중계의 확대, 대규모 관중 동원 가능성은 구단 운영과 선수 연봉 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제공했다.

프로야구 창설 이전까지 재일동포 야구선수들의 한국 무대 진출은 제한적이었다. 한국 실업야구에서 활약한 선수들은 대부분 일본 프로야구 2군 출신이었거나 일본 프로팀 입단에 실패한 이들이었다. 이 시기의 한국 야구는 재일동포 선수들에게 일본 프로야구의 대안적 무대라기보다, 일본 야구 시스템의 주변부로 밀려난 선수들이 ‘야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선택 구조는 1982년 프로야구 창설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1982년 한국 프로야구 평균 연봉은 1,215만 원으로, 일본 프로야구 평균 연봉(733만 엔)과의 격차가 약 1.76배로 좁혀졌다. 이는 불과 2년 전인 1980년에 약 5배를 상회하던 격차가 극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일본 프로야구 1군의 후보급 선수 연봉과 한국 프로야구 최상위 선수들의 연봉 수준이 일정 부분 겹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 확고한 주전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선수들, 특히 재일동포 선수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차악’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차선’ 혹은 장기적으로 모국으로 생활 기반을 옮길 가능성까지 탐색할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안정적인 출전 기회, 관중과 미디어의 주목, 그리고 스타 선수로서의 사회적 위상까지 결합되면서 한국 무대의 매력은 실질적으로 증대되었다.

26 김명권, 앞의 논문(2012); 김은식, 앞의 논문(2019).

하지만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절상된 엔화 가치는 재일동포 선수 이동을 종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엔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도 달러 기준으로 크게 올랐고, 한국 프로야구와의 격차는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표3 참조). 한국 구단들이 재일동포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하면서, 영입의 경제적 합리성이 약화된 것도 물론이다.

동시에 한국 프로야구 자체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서 재일동포 선수에 대한 의존도도 감소했다. 초기 리그에서는 일본 프로 경험자들이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보였으나, 국내 선수들의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해 1980년대 중 후반에는 재일동포 선수들과 비슷한 기량을 발휘했다.²⁷ 또한 1998년부터는 외국인 선수 쿼터가 도입되면서 미국이나 중남미 출신 선수들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구단들은 재일동포보다는 파워와 스피드 면에서 월등한 이들 선수를 선호하게 되었다.

재일동포 사회 내부의 세대교체도 이동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재일 3세, 4세로 갈수록 민족 정체성이 약화되고 일본 사회에 동화되면서 한국으로의 이동 동기가 감소했다.²⁸ 또한 일본 프로야구 내에서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일본에 남아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었다. 이처럼 공급과 수요, 경제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980년대 후반 이후 재일동포 선수의 한국 유입은 급격히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재일동포 선수 이동은 실업야구 확대로부터 서정쇄신 조치 사이의 10여 년(1960년대 중반~1970년대 중반)과 한국 프로야구 출범을 전후한

27 전용배·김애랑, 앞의 논문(2011), 82쪽.

28 정진성, 앞의 논문(2017), 75쪽.

약 10여 년간(1970년대 후반~1980년대 중반)에 집중된 ‘구조적 창(structural window)’²⁹의 산물이었다. 한국 측에서는 프로리그 출범으로 인한 기술 수요 폭증과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 체계가, 일본 측에서는 재일동포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경쟁 심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이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창은 플라자 합의 이후 경제 조건 변화, 한국 야구의 자체 성장, 외국인 선수 제도 도입 등으로 빠르게 닫혔다.

IV. 장명부의 사례: 전형적 경로와 사건적 계기

1. 장명부와 재일동포 야구선수들의 전형적 경로

장명부의 생애는 재일동포 야구인들이 일본 사회에서 경험한 차별과, 스포츠가 제공한 제한적 기회가 어떻게 교차했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29 시드니 테로우는 ‘집합행동의 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정치 환경의 지속적 차원’을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Sidney Tarrow, “States and Opportunities: The Political Structuring of Social Movements,” in 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 41~61],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가인 루스 베린스 콜리어와 데이비드 콜리어는 제도적 경로를 바꾸게 만드는 결정적인 선택 국면을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s)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Ruth Berins Collier & David Collier, *Shaping the Political Arena: Critical Junctures, the Labor Movement, and Regime Dynamics in Latin America*(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테로우는 외부적 환경 변화가 만드는 행위 가능성을, 콜리어는 경로의존을 바꾸는 압축적 선택의 순간을 강조했지만, ‘구조들 사이의 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주의와 제도주의의 이론적 전제와 맥락을 떠나 그 일반적인 상황적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위 이론들이 포착한 구조 사이의 일시적인 틈을 ‘구조적 창(structural window)’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전형적인 사례다.

동생 장용부(마쓰바라 다쓰오[松原龍夫])의 증언에 따르면, 장명부는 어린 시절 외모를 이유로 ‘인도 사람이냐’는 조롱을 받았고, ‘마늘 냄새가 난다’는 상투적 혐오 표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그로 하여금 ‘조선인이 바보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야구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자주 하게끔 했다. 동생에게도 야구부 입부를 강권했던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였다. 누적된 차별 경험이 야구를 차별로부터의 탈출구이자 사회적 인정을 획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로로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³⁰

반면 중·고교 시절 야구부에서의 경험은 일상적 차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당시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장명부는 민족적 배경으로 차별받기보다는 탁월한 실력으로 인해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었다.³¹ 이는 스포츠 공간이 일정 부분 차별의 예외 지대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능력이 가시적으로 평가되는 경기장 안에서는 출신의 벽이 일시적으로 중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성은 제도적 문턱 앞에서 언제든지 쉽게 붕괴될 수도 있었다. 그 상징적 사례가 장명부가 고교 졸업을 앞두고 오사카의 한 보험회사 사회인팀 입단이 내정되었다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건이다. 이때 장명부가 장롱 속에 보관하던 어린 시절 사진을 모두 꺼내 태웠다는 동생의 회고는, 개인의 성취가 출신에 의해 언제든지 부정될 수 있는 폭력적 구조를 극적으로 드러내며 그것이 재일동포 야구선수들의 심리와 정서에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이후 일본 프로야구 구단인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스카우트되어 프로 무대에 진출하고, 1974년 결혼과 함께 아내를 따라 성을 바꾸며 귀화를 선택한 과정은 일본 사회에서의

30 장용부 구술(2023.10.19).

31 다카가키 다케시, 이노우에 히로시 구술(2023.5.10).

안정적 선수 생활을 위해 ‘정체성의 수정’이 요구되었음을 보여 준다.

1975년 한국 방문경기 당시 이복형과의 조우 경험은 그에게 ‘조국’이라는 상상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고,³² 이후 몰래 한국어를 공부할 정도로 감정적 유대를 만들게 된다. 장명부는 말도 통하지 않는 데다가 이전까지 그 존재도 알지 못했던 이복형이 동대문야구장으로 찾아와 자신을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 사건을 통해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가 오히려 자신과 더욱 밀접한 곳이며 보다 온정적인 환경일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였다.³³

이는 다수의 재일동포 야구인들이 일본 사회에서의 차별 경험을 배경으로, 비슷한 조건이라면 더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고자 했던 공통의 심리 구조와 맞닿아 있다. 재일동포 야구인들에게 일본에서의 야구는 차별을 상쇄할 수 있는 능력 기반의 통로였지만, 그 통로는 언제나 성과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불안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성과를 통해 확보된 통로를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덜 차별적이고 더 온정적인 환경을 지향하는 것은 재일동포 야구선수들에게 합리적인 일이었다.

2. 장명부의 활약과 재일동포 야구선수 유입 확대

장명부의 한국 진출은 1983년 약 1억 3,000만 원(계약금 및 연봉 합산)의 조건으로 삼미 슈퍼스타즈에 입단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는 당시 국내 최고 수준인 최동원(7,000만 원), 장효조(6,400만 원)의 보수의 약 2배에 근접하는

32 홍순일, 「바람처럼 살다 간 너구리 장명부의 추억」, 《Baseball Classic》 2009년 10월호, 27쪽.

33 장용부 구술(2023. 10. 19).

표4-프로야구 시기 국내에서 활동한 주요 재일동포 선수(1982~1990년대)

이름	소속팀	포지션	주요 활약
장명부	삼미, 청보, 빙그레	투수	1983년 30승
주동식	해태 타이거즈	투수	1983년 한국시리즈 2승
김무중	해태 타이거즈	포수	1983년 우승 주전포수
김일용	삼성 라이온즈	투수	1985년 25승, 통합우승
홍문중	롯데 자이언츠	외야수	1984년 타격 2위
고원부	빙그레 이글스	내야수	1989년 타격왕

수치였다.³⁴ 삼미 구단이 장명부 1인에게 투입한 비용은 해당 연도 신인 선수 15명에게 지출된 전체 예산(약 6억 3,000만 원)의 20%를 상회하는 파격적인 규모이기도 했다.

장명부는 1983년 시즌 팀 경기(100경기)의 60%에 해당하는 60경기에 등판하여 427.1이닝을 소화하며 30승을 기록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전년도 승률 0.188로 최하위였던 삼미의 승률은 0.525로 수직상승하며 곧장 우승 경쟁권으로 진입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한 명의 투수가 팀의 전력과 리그 경쟁의 균형을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제공했으며, 동시에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실감하게 했다.

장명부의 성공 이후 김일용(1984, 삼성), 김기태(1986, 청보) 등 일본 프로야구 1군 타이틀홀더급 선수들이 연이어 역대 몸값을 기록하며 국내로 유입되었다. 특히 김일용은 1985년 25승을 거두며 삼성의 전·후기 통합 우승을 이끌어 장명부와 더불어 재일동포 선수의 위력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그리고 그런 연속된 성공이 김성길, 고원부, 송재박 등 검증된 자원들이 한국 무대를 선택하는 ‘재일동포 엘리트 선수의 집단적 이동’ 현상을 가

34 《조선일보》, 1982년 12월 30일.

속화시켰다. 당시 언론은 이를 ‘교포 스카우트 비용 문제’로 비판하기도 했다.³⁵

하지만 장명부의 활약과 그것을 통해 더욱 확대된 일본 프로야구 출신 재일동포 선수들의 한국 진출은 단순한 스타 선수의 유입을 넘어, 한국 프로야구의 자원 배분 방식과 시장 가치 산정 기준을 구조적으로 재조정한 사건이었다. 그들의 압도적 활약은 일본 프로야구(NPB) 시스템에서 훈련된 재일동포 엘리트 투수를 영입하는 것이 국내 아마추어 유망주 발굴보다 리스크가 낮고 효율적인 투자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는 고액의 보상을 지불하더라도 검증된 해외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리그의 상업적 생존과 경기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시장 논리를 정착시켰다.

장명부의 한국 진출은 특수한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한·일 야구 구조 교차가 만들어 낸 상징적 결과였다. 동시에 그는 재일동포 선수 유입 확대를 촉발한 사건적 계기였다. 그의 활약 이후 다른 재일동포 선수들의 한국행 결심이 증가했고, 구단들의 일본 선수 스카우트가 활성화되었으며, 언론의 주목이 재일동포 선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는 장명부 개인의 성공이 재일동포 야구선수 전체에 대한 시장 가치를 재정의하는 효과를 낳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명부의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기록적 성취를 넘어, 한국 야구 시장이 동아시아 야구 노동시장의 흐름에 응답하며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 나간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의 삶은 구조적 결과이자 전환점이었다.

35 《동아일보》, 1982년 12월 30일.

3. 재일동포 야구선수 저평가의 양상과 요인

재일동포 선수들의 기여가 한국 야구사 서술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은 단일 요인이 아니라, 학술 연구 경향, 언론 보도 구조, 사회문화적 맥락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우선 한국 야구사에 관한 주요 학술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재일동포 선수들의 역할은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으로만 다루어졌다. 김명권, 김은식 등의 연구는 프로야구 출범, KBO 설립, 엘리트 체육 정책 등 제도 형성의 거시적 측면에 집중했으며,³⁶ 개별 선수들의 역할은 부차화되었다. 대한야구협회가 1999년에 발간한 『한국야구사』는 장명부의 30승 기록을 언급하지만, 이것이 한국 프로야구의 기술적 수준 향상이나 시장 가치 재조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제도사 중심 연구 경향으로 인해 선수 노동의 이동이라는 미시적 차원의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재일동포 선수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야구 출범 초기인 1982년 장명부 입단 시점의 주요 일간지 기사를 검토했다. 1982년 12월 30일 《조선일보》는 ‘1억원대 황금의 팔 장명부, 삼미 슈퍼스타즈 입단’이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는 ‘프로야구 교포 스카우트 비용 너무 많이 든다’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 외에도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관련 보도 5건³⁷을 분석한 결과, 재일동포 선수들에 대한 언론 보도는 계약금과 연봉 액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황금의 팔’이라는 은유에서 드러나듯 인간 주체보다는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일본에서 온’, ‘외국 출신’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

36 김명권, 앞의 논문(2012); 김은식, 앞의 논문(2019); 김은식, 앞의 논문(2022).

37 《경향신문》, 1983년 10월 6일, 2005년 4월 15일; 《프레시안》, 2005년 4월 15일; 《강원도민일보》, 2005년 4월 14일; 《헤럴드경제》, 2012년 10월 24일.

며 출신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반면 변화구 도입 과정, 투구 메커니즘 전수, 일본식 훈련법 이식 등 구체적인 기술 이전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일본 사회의 재일동포 차별 구조, 취업 제한, 한국 프로 출범과 연봉 격차 등 구조적 배경에 대한 설명 역시 완전히 부재했다. 이는 기술 이전을 설명하기보다 선수의 상징성과 소비 가능성을 강조하는 보도 관행을 반영한다.

이러한 보도 경향은 재일동포 선수들을 경제적 소비 대상이나 감정적 소비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재일동포 선수들은 실제로는 일본 프로야구 시스템에서 훈련된 기술을 한국에 전달하는 매개자였으나, 언론 보도는 ‘돈 받고 온 용병’ 또는 ‘고국을 찾은 감동 스토리’로 단순화했다. 이는 재일동포 선수들의 구조적 기여를 비가시화하고, 한국 야구가 ‘자력으로 성장’했다는 서사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재일동포 선수들의 기여가 저평가된 것은 앞서 살펴본 학술 연구와 언론 보도의 특성 외에도 다음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첫째, 민족주의적 서사의 영향이다. 도사 마사키는 탈식민 시기 한국에서 스포츠가 반공 및 대일 경쟁에서의 승리와 같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특히 일본을 ‘숙적’으로 상징하는 기억의 재생산은 스포츠 내셔널리즘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적대적 경쟁 의식은 일본 야구 시스템의 영향을 인정하기보다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타자화함으로써, 재일동포의 기여를 주류 역사학에서 주변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³⁸ 실제 한국 프로야구는 창립 초기부터 국가적 결속과 체제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호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스포츠 서사는 내부의 결속과 성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고

38 Masaki Tosa, "Sport Nationalism in South Korea: An Ethnographic Study," *SAGE Open*, Vol. 5, No. 4(2015), pp. 1~4.

작되었다.³⁹ 이러한 환경에서 재일동포라는 ‘경계인’들이 가져온 일본식 기술 자본의 이식은 한국 야구의 자생적 발전 서사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간주되어, 주류 역사 서술에서 의도적으로 생략되거나 주변적인 위치로 밀려나게 되었다. 특히 일본 야구를 극복의 대상으로 삼았던 ‘극일(克日)’의 이데올로기는 재일동포 선수들이 제공한 기술적 토양을 정당하게 평가하기보다, 단기적인 인적 보완재로 과소평가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둘째, 세대 교체에 따른 ‘기억의 선택적 풍화’이다. 1980년대 재일동포 선수들의 활약을 직접 목격하고 체감했던 세대가 점차 은퇴하고 고령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집단적 기억은 급격히 소멸되었다. 2000년대 이후 야구 팬들은 박찬호, 류현진 등 메이저리그 진출 선수들과 그들을 통해 소개된 미국식 문화와 기술에만 주목했고, 1980년대 프로야구 초기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재일동포 선수들의 기여는 ‘옛날이야기’로 치부되면서 역사적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셋째, 자료 접근성 문제다. 재일동포 선수들의 개인사와 기술적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 양국의 기록을 유기적으로 교차 검증해야 하지만, 이는 언어적 장벽과 사료의 파편화로 인해 연구자들에게 상당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⁴⁰ 일본 내 재일동포 사회의 폐쇄적 기록과 한국 내 단편적인 언론 보도 사이의 간극은 ‘입증의 곤란함’을 야기했고, 이러한 자료의 공백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학술적 방기로 이어졌다. 특히 일본은 인구 조사에 민족을 측정하는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으며,⁴¹ 재일동포들도 사회적 차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정확한 정체성을 공개하기 꺼리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생산되지 않는 근본적인 한계

39 김명권, 앞의 논문(2012), 1~6쪽.

40 정진성, 앞의 논문(2017), 65쪽.

41 《Japan Times》, 2010년 10월 5일.

도 존재한다. 일본 내 재일동포 야구선수들의 동향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현상은 이러한 사료적 소외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재일동포 선수들의 역할은 한국 야구사에서 주변적 일화로 취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1960년대 실업야구 시기부터 1980년대 프로야구 초기까지 재일동포 선수들의 구체적 활약을 추적했다. 이들은 1960년대 실업야구 시기부터 1980년대 프로야구 초기까지 한국 야구의 기술적 급성장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재일동포 야구인들의 영향은 단순한 개별 성공 사례가 아니라, 한·일 양국의 사회구조와 경제적 조건이 교차하며 만들어 낸 역사적 필연이었다. 이들의 기여를 정당하게 재평가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복원하는 작업이 아니라, 한국 스포츠사를 국가주의적 틀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이고 입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저평가가 단순한 기억의 누락이 아니라, 특정한 지식 생산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된 결과임을 보여 주고자 한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약 30년간 한국 야구와 재일동포 선수들이 형성한 관계를 역사적 문헌과 통계 데이터를 통해 추적하고, 이들이 한국 야구의 기술적 급성장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재조명했다. 또한 이들의 기여가 왜 한국 야구사 서술에서 체계적으로 저평가되어 왔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야구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국제대회 성적을 통

해 확인되는 급격한 성장을 경험했다. 1950년대에 아시아에서는 중위권 수준이었으나 1963년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우승을 계기로 아시아 정상급으로 도약했고, 1970년대에는 아마추어 세계 정상권에 진입했으며,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2000년대에 이르며 세계 정상급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투수 기술을 중심으로 한 질적 전환이었다.

둘째, 재일동포 선수들은 이 시기 한국 야구에 참여해 결정적 기여를 했다. 1956년 장석화를 시작으로 프로야구 창설 이전까지 약 20여 명이 한국 실업야구에 합류했으며, 김영덕과 신용균 등은 변화구 기술을 한국 무대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며 1963년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우승에 기여했다. 프로야구 출범 이후에는 장명부, 김일용, 김기태 등 일본 프로야구 1군급을 비롯한 30여 명의 선수들이 한국으로 이동하며 초기 리그의 기술적 표준을 제시했다. 이들의 영향은 문화적 상징이 아니라 기술적 자극과 기술 이전이라는 실질적 차원에서 작동했다.

셋째, 장명부는 재일동포 선수 이동의 상징적 전환점이었다. 1983년 그의 한국 진출과 30승이라는 압도적 성과는 일본 프로야구 시스템에서 훈련된 재일동포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합리적 투자라는 인식을 구단들에게 확산시켰다. 이는 이후 일본 프로 1군급 선수들의 연쇄적 유입으로 이어졌으며, 한국 프로야구 초기의 경기력 확보와 흥행 성공에 기여했다. 장명부의 사례는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한·일 야구 구조 교차가 만들어 낸 구조적 결과이자 사건적 계기였다.

넷째, 재일동포 선수 이동은 1960년대와 1980년대 초중반에 집중된 ‘구조적 창’의 산물이었다. 일본 사회의 재일동포 차별 구조는 이들을 야구에 전념하게 만들었고, 한국의 실업야구 확장(1963년)과 프로야구 출범(1982년)은 재일동포 선수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특히 프로야구 창설로 한·일 연봉 격차가 급격히 축소되면서, 한국은 재일동포 선수들에게 전략적 대안 시

장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의 엔화 절상, 한국 야구의 자체 성장, 외국인 선수 제도 도입 등으로 이 구조적 창은 빠르게 닫혔다.

다섯째, 재일동포 선수들의 기여는 한국 야구사 서술에서 저평가되어 왔으며, 그 이유는 민족주의적 서사, 제도사 중심 연구 경향, 언론 보도의 경향, 세대 교체에 따른 기억 소멸과 자료 접근성 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 결과 재일동포 선수들의 활약은 학술적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고국을 찾은 성공담’이나 ‘이색적 기록’으로 소비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기술 이전 연구에 대한 기여다. 기존 연구가 국가 간 공식 교류나 코치 파견 등 제도적 경로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통한 비공식적 기술 이전의 사례를 제시했다. 재일동포 선수들의 이동은 개인 단위의 선수 이동이 집합적으로 축적되어 한 국가의 스포츠 기술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스포츠 기술 이전을 단순히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노동 이동과 시장 구조의 교차 속에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재일동포 연구에 대한 기여다. 기존 재일동포 연구가 주로 차별, 정체성, 정치적 지위 등 사회학적·정치적 맥락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스포츠를 통한 ‘조국 기여’의 구체적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재일동포 야구선수들은 일본 사회에서 주변화된 위치에 있었지만, 한국 야구라는 특정한 장에서는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했다. 이는 디아스포라 집단이 모국과 맺는 관계가 단순히 상징적이거나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자원과 기술의 이동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셋째, 한국 야구사 연구에 대한 기여다. 본 연구는 한국 야구의 급성장을 설명하는 기존 서사—국가 주도 엘리트 체육 정책, 프로야구 출범, 메이저리그 진출—에 재일동포 선수들의 역할이라는 새로운 설명 변수를 추가했다.

이는 한국 야구사를 국내 발전의 선형적 서사가 아니라, 동아시아 야구 노동 시장의 교차와 이동 속에서 재구성된 초국적 역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한다.

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재일동포 선수 개개인의 심층 면담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 장명부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일부 활용했으나, 이는 보조 자료로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향후 생존 선수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구술사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기술 전수의 구체적 경로와 선수들의 주관적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 야구 발전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들—미국 야구의 영향, 국가 체육 정책, 국내 훈련 시스템의 발전—과의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재일동포 선수들의 역할이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실증했으나, 그 기여도를 수치화하거나 다른 요인들과 비교 분석하지는 못했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회귀분석이나 비교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셋째, 비교 연구의 부재다. 대만 야구에서 재일화교가 수행한 역할, 축구나 레슬링 등 다른 종목에서의 재일동포 선수 이동과 비교한다면, 야구라는 종목의 특수성과 재일동포 이동의 일반적 패턴을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제이나, 후속 연구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주제다.

넷째, 언론 보도 경향 분석이 제한적이었다. 1982년 주요 일간지 기사를 중심으로 보도 경향을 파악했으나, 전수 조사나 체계적 내용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1980~2000년대 재일동포 선수 관련 보도를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시기별·신문사별 보도 경향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야구의 기술적 급성장이 재일동포 선수들의 구조적 유입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재일동포 야구인들의 영향은 개별 성공 사례가 아니라 한·일 사회구조 교차가 만들어 낸 결과였다. 이들의 기여를 정당하게 재평가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복원하는 작업이 아니라, 한국 스포츠사를 보다 정직하고 풍부하게 서술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다.

주변적 일화로 취급되던 사건들을 구조적 역사로 재위치시킴으로써, 우리는 한국 야구의 압축적 성장을 단순한 내부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동아시아 야구 노동시장의 교차와 이동 속에서 재구성된 역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스포츠사가 단일한 국내 노력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통한 초국적 기술 이전이라는 복합적 과정이었음을 보여 준다. 재일동포 선수들의 역할을 한국 야구사의 주변적 일화가 아니라, 프로야구 형성과 성장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작동한 역사적 요소로 재배치한 것이 본 연구의 성과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강원도민일보》, 2005년 4월 14일.
《경향신문》, 1983년 10월 6일, 2005년 4월 15일.
《동아일보》, 1963년 4월 10일, 1982년 12월 30일.
《매일노동뉴스》, 2000년 7월 14일.
《조선일보》, 1982년 12월 30일.
《프레시안》, 2005년 4월 15일.
《헤럴드경제》, 2012년 10월 24일.
《Japan Times》, 2010년 10월 5일
강병철 구술, 2026년 4월 24일, 판교역 인근 카페 면담.
다가카키 다케시·이노우에 히로시 구술, 2023년 5월 10일, 히로시마 자택 면담.
백인천 구술, 2021년 5월 24일, 평택 자택 면담.
장용부 구술, 2023년 10월 19일, 오사가 자택 면담.
〈현해탄의 낙엽〉 (미개봉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이영곤).

2. 논저

- 김명권, 「한국 프로야구의 창립배경과 성립과정」, 『스포츠인류학연구』 7-2, 2012, 35~68쪽.
김응식, 「한국 프로스포츠의 발전과정과 미래지향적 모형」,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 1997, 35~68쪽.
김은식, 「1970년대 한국사회의 변동과 프로야구의 탄생」, 『한국학』 42-2, 2019, 223~258쪽.
김은식, 「한국 야구의 발전과 프로야구의 제도화 과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김은식, 「1960~1970년대 한국실업야구의 야구사적 의의에 관한 연구」, 『스포츠인류학연구』 19-2, 2024, 1~28쪽.
우승호, 「재일동포학생야구단의 모국방문경기에 관한 역사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장태영, 『백구와 함께 한 세월: 장태영 야구인생 70년』, 서울: 흥, 1998.
전용배·김애랑, 「한일야구의 사회문화적 함의 비교」, 『일본근대학연구』 34, 2011, 331~351쪽.

- 정진성, 「재일동포의 국적과 정체성」, 『일본공간』 21, 2017, 61~89쪽.
- 조상균, 「국적을 이유로 하는 재일동포의 공무원 승진임용 차별」, 『인권과 정의』 348, 2005, 28~45쪽.
- 조희준, 「한국야구 발전에 기여한 백상 장기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한국야구사간행위원회, 『한국야구사』, 서울: 대한야구협회, 1999.
- Collier, Ruth Berins & Collier, David, *Shaping the Political Arena: Critical Junctures, the Labor Movement, and Regime Dynamics in Latin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 Métraux, Daniel A., “Baseball in Japan and the US: History, Culture, and Future Prospects,” *Sports, Culture, and Asia*, Vol. 21, No. 2, 2016, pp.38~67.
- Tarrow, Sidney, “States and Opportunities: The Political Structuring of Social Movements,” in McAdam, Doug, McCarthy, John D., and Zald, Mayer N.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 41~61.
- Tosa, Masaki, “Sport Nationalism in South Korea: An Ethnographic Study,” *SAGE Open*, Vol. 5, No. 4, 2015, pp. 1~13.

3. 기타

- 일본프로야구선수회(JPBPA), <https://jpbpa.net>(검색일: 2024. 1. 15).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s://ecos.bok.or.kr>(검색일: 2024. 1. 15).
-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KPBPA), <http://www.kpbpa.com>(검색일: 2024. 1. 15).
- 홍순일, 「바람처럼 살다 간 너구리 장명부의 추억」, 《Baseball Classic》 2009년 10·11·12월호.

국문초록

한국 야구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아시아 중위권에서 세계 정상권으로 급성장했다. 기존 연구가 국가 정책과 프로야구 출범 등 제도적 요인에 집중한 반면, 재일동포 선수들의 역할은 저평가되어 왔다. 본 연구는 1956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 야구에 참여한 약 50명의 재일동포 선수를 역사적 문헌, 통계, 구술 증언으로 분석했다. 1983년 30승을 기록한 장명부를 중심으로, 이들이 한국 프로야구 형성기에 일본 야구 기술을 전달한 핵심 매개자였음을 실증했다. 1980년대 초반 재일동포 선수 유입 집중은 일본 사회 차별, 한국 프로야구 출범, 한·일 연봉 격차 축소(1980년 5.38배 → 1982년 1.76배)가 교차한 '구조적 창'의 산물이었으나,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빠르게 닫혔다. 저평가는 민족주의 서사, 제도사 중심 연구, 언론의 계약금 집중 보도, 기억 소멸이 복합 작용한 결과였다. 본 연구는 재일동포 선수를 한국 야구 근대화의 구조적 행위자로 재배치하여, 한국 스포츠사를 동아시아 노동시장 교차와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통한 초국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시각을 제공한다.

투고일 2026. 4. 1.

심사일 2026. 4. 27.

게재 확정일 2026. 5. 26.

주제어(keywords) 재일동포(Korean-Japanese, Zainichi Korean), 프로야구(professional baseball), 기술 이전(technology transfer), 디아스포라 네트워크(diaspora networks), 장명부(Chang Myung-bu)

Abstract

The Contribution of Zainichi Korean Baseball Players to Korean Baseball: Focusing on Chang Myung-bu

Kim, Eunsik

Korean baseball experienced dramatic growth from the late 1950s to the 1980s, rising from a mid-tier position in Asia to a world-class level. Existing research has primarily focused on state-led policies and the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baseball, while the role of Zainichi Korean players has remained undervalued. This study analyzes approximately 50 Zainichi Korean players who participated in Korean baseball between 1956 and the early 1990s through the examination of historical documents, statistics, and oral testimonies. Focusing on Chang Myung-bu, who recorded 30 wins in 1983,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se players functioned as key mediators in the transfer of Japanese baseball techniques during the formative period of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The concentration of Zainichi Korean player migration in the early 1980s resulted from a “structural window” created by discrimination within Japanese society, the establishment of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and the narrowing salary gap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declined from 5.38:1 in 1980 to 1.76:1 in 1982). However, this window closed rapidly following the 1985 Plaza Accord. The undervaluation of these players resulted from the complex interaction of nationalist narratives, institution-centered research trends, media emphasis on contract amounts, and the erosion of collective memory. This study repositions Zainichi Korean players as structural actors in the modernization of Korean baseball and offers a perspective that understands Korean sports history as a transnational process shaped by the intersection of East Asian labor markets and diaspora networks.